

“학생부 반영 과목 제각각... 수능 최저도 파악해야”

2019 대입 수시 전략

진학사 학생부 반영 과목 분석

가천대·서울여대·한국항공대
일부과목 성적만 반영

이화여대·동국대·중앙대

우수한 교과영역만 산출 가능

수험생들은 보통 학생부와 수능모의평가 중 상대적으로 자신있는 성적에 맞춰 수시나 정시를 선택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무나 학생부 반영 교과가 다를 경우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대학별 모집요강을 파악해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

14일 진학사가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치르는 수도권 대학들의 학생부 반영 과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천대, 동국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홍익대 등이 학생부 성적의 일부 과목만 반영하고 대학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

대학	전형	반영 과목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인문: 국어·수학·영어·사회 각 교과별 상위 4과목씩
	적성우수자	-자연(의예·한의예 제외): 국어·수학·영어·과학 각 교과별 상위 4과목씩
동국대	논술우수자	-전 계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상위 10과목
서울여대	교과우수자	-인문(교육심리·체육 포함): 국어·수학·영어·사회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논술우수자	-자연: 국어·수학·영어·과학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이화여대	논술	-전 계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상위 30단위
중앙대	논술	-인문: 국어·수학·영어·사회 중 상위 10과목
	논술	-자연: 국어·수학·영어·과학 중 상위 10과목
한국항공대	교과성적우수자	-일부학과*: 국어·수학·영어·과학 학기 별 1과목씩
	논술우수자	-일부학과**: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1) 학기 별 1과목씩
홍익대	논술전형	-전 계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이수단위 큰 교과)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항공전자정보공학부·항공재료공학부.

** : 소프트웨어학과·항공교통물류학부·항공운항학과·자유전공학부·경영학부.

/자료=진학사

가천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의 경우 학생부 등급이 가장 중요한 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일부과목 성적만 반영하고, 동국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의 경우는 논술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활용해 지원자의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 이 가운데 동국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각 교과를 골고루 활용하지 않고 우수한 교과영

역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부 영향력은 더 떨어진다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학별로 보면, 가천대는 수시모집 학생부우수자전형 등에서 국어, 수학, 영어 3 과목에 인문계열은 사회 과목, 자연계열(의예, 한의예 제외)에서는 과학 과목 등 각 교과별 상위 4과목씩 반영하는 반

면, 서울여대는 반영 과목은 같지만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을 반영한다.

동국대 논술우수자전형에서는 전계열 공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상위 10과목 성적을 반영하고, 이화여대는 논술전형에서 전계열 공통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상위 30단위를 반영해 학생부 성적을 산출한다. 한국항공대의 경우 학과별 반영교과가 다른 경우도 있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에서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학기별 1과목씩 반영하지만,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등에서는 과학 대신 사회를 선택해 성적을 반영할 수도 있다.

수시모집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정성 평가를 통해 학생부 성적이 반영된다. 다만 연세대의 경우 전년도에 학생부 성적 30%를 반영하던 논술전형의 전형 방법을 변경해 논술 100%와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양대의 경우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가 30% 반영되지만 학생의 학교생활성실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하므로 내신 성적은 필요 시 관련계열 교과 이수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될 뿐 평가요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결국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학생부의 영향력이 크지만, 반영하는 교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면, 학생부 성적의 영향력은 낮은 게 보통이므로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파악해 지원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학생부성적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수시모집에 전략적으로 지원했다가 불합격해 재수한 경우, 3학년 2학기 성적이 낮다면, 재수생도 학생부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만 반영하는 전형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수시 선발 비중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낮은 내신 때문에 좁은 정시문만 두드러지는 것은 어쩌면 무모할 수 있다”며 “대학의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잘 살펴보면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KB금융 유치원·돌봄교실 확대에 750억 기부

교육부와 발전 업무협약 체결

KB금융이 2022년까지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을 위해 750억 원을 교육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초등 돌봄 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KB금융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50억 원씩 총 75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나 중학교 내에 설립된 공립유치원인 병설유치원 250개 학급, 초등학교 돌봄교실



1700개가 새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 5000명과 초등학생 3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을 중심으로 늘고, 초등 돌봄교실은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해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고려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KB금융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 KB금융과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서울 1분기 알바 평균시급 8299원...중구 1위

(8493원)

알바몬 빅데이터 분석

지난해 3분기 대비 638원 상승
낮은 시급 구로·도봉·동작구 순

올해 1분기 서울시내 아르바이트 시급 평균이 8299원으로 조사돼 지난해 3분기보다 638원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중구 아르바이트 시급이 가장 높았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올 1분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서울시 채용 공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결과, 서울시내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의 시간당 평균급여(8299원)는 전년 3분기 평균급여(7661원)보다 638원 높았다.

서울시 25개 구별로는 ▲중구를 근무지로 하는 알바 공고의 평균 시급이 8493원으로 가장 높았고, 2위는 시간당 8477원의 평균 급여를 기록한 ▲동대문구가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7440원 ▲강북구 8421원 ▲영등포구 8346원 ▲송파구 8340원 ▲마포구 8339원 ▲중랑구 8330원 ▲서초구 8324원 ▲강동구 8283원 등

의 순으로 높았다.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구는 ▲구로구로 시급이 8054원이었고, ▲도봉구 8056원 ▲동작구 8059원 ▲은평구 8089원 ▲서대문구 8109원 등도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아르바이트 일자리 공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8만3000여건)로 서울시 전체 공고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어 ▲송파구 4만3000여건 ▲마포구 4만2000여건 ▲서초구 3만8000여건 ▲영등포구 3만8000여건의 순으로 채용 공고가 많았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서울대 박병욱 교수, 수리통계학회 ‘카버 메달’ 수상

서울대학교는 통계학과 박병욱 교수(57·사진)가 수리통계학회(IMS)가 수여하는 카버 메달(Carver Medal) 2018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리통계학회는 확률과 통계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로 카버 메달은 학회 창립자이자 학회 대표 학술지 창립 편집장이던 해리 C. 카버(Harry C. Carver)를 기념해 학회가 제정한 상이다. 학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학자에게



수여된다. 박 교수는 학회의 아시아태평양 연안국 학술대회(Asia Pacific Rim Meeting)를 정규 학술대회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7월 2~6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연차학술대회에서 열린다.

/한용수 기자

한세실업

내일 ‘열린 채용설명회’

한세실업은 서울 청량리 복합문화공간 상생장에서 패션업계에 구직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6일 진행되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한세실업과 잡인사이더가 공동으로 기업의 업무환경을 그대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채용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는 ‘기업 내부자의 이야기’로 실무자들의 회사 소개와 하루 일과 영상, 거저말타기기를 활용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전문가 초청 강연이 진행돼 취업 준비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무자들의 입사지원 시 조언을 듣고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3부는 ‘해피아워’ 케이터링을 즐기며 실무자와 함께 하는 루프탑토크, 우승자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 채용설명회 참가비는 무료며 참가자는 해당기업 입사 지원 서류 가산점이 주어진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14일 오전 세종시 연세유치원에서 열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대피훈련에서 어린이들이 화재경보가 울리자 야외로 대피하고 있다.

/연철뉴스

아시아 연극 셋별·세계 석학들 중앙대에 모인다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개교 100주년, 연극학과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연극교육센터(ATEC)와 공동으로 16일~20일까지 서울캠퍼스 아트센터대극장에서 제3회 세계연극교육컨벤션과 제5회 아시아연극학교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연극교육컨벤션은 2014년 시작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로, 세계 12개 대학 연극학과 교수진들이 모여 대학연기교육의 현황을 공유하고 비전을 탐색하

는 학술의 장이다. 올해는 세계 10개국 15개 대학에서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함께 진행되는 아시아연극학교페스티벌 행사에는 세계 8개교(중앙대, 청운대, 홍콩공연예술원, 브루나이 다루살람대학, 하노이연극영화원, 일본 도호기쿠엔 연극음악대학, 몽골국립예술문화대, 중국 중앙희극학원)가 참여해 ‘사무엘 베케트: 빈 무대 위의 배우의 현존’이란 주제로 공연하며 경쟁을 펼친다.

/한용수 기자

전국 2만개 학교서 닷새간 재난대비 훈련

교육부는 14일~18일까지 5일간 전국 학교와 학교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수습과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전국 2만여 개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재난대응 훈련으로, 훈련 첫날인 14일에는 국제교육원 충주센터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

을 가정하고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의 토론훈련이 진행됐고, 15일에는 전날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교육원 충주센터와 충주학생회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훈련이 진행된다.

올해는 특수학교와 유아 대상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화재 대피훈련 등 다양한 재난 유형과 상황을 설정하는 유형별 대응 훈련 위주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